

문학으로 떠난 다양한 삶의 무늬들

세 작가의 최근 소설을 읽고

이성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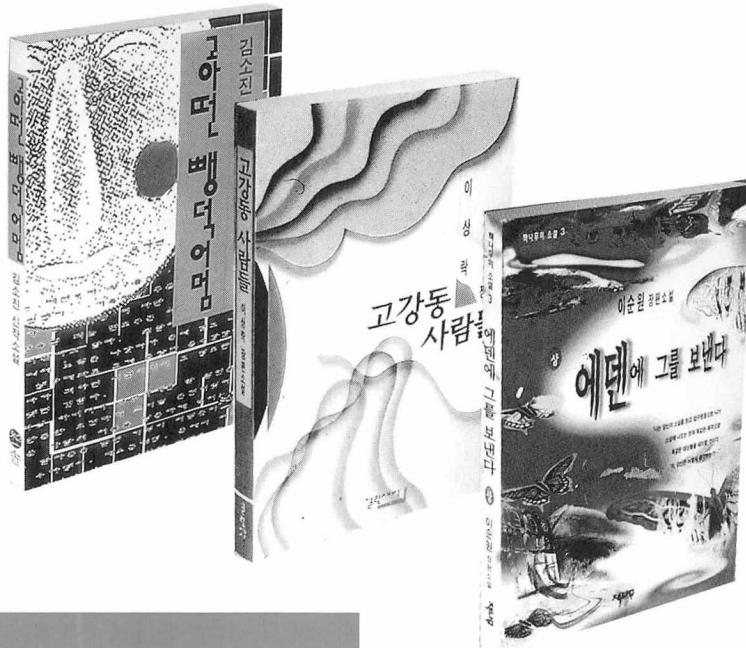
문학평론가

김소진의 소설이 처음 상재되었을 때 특히 도드라져 보이고 또 세간의 주목을 받았던 면은 언어 다루기 방식이었다. “문학에서 언어란 형상과 메시지의 운반체”라는 사실을 “작가는 그의 언어사용 능력의 폭과 깊이에 따라 문학적 역량이 가늠된다”는 말과 연결지어 본다면, 일상에서, 아니 새로운 세대들의 일상에서 더 이상 쓰이지 않는 말들을 문학공간에서 복원하고자 애쓰는 그의 모습은 다소간의 억지가 보이지 않는 것은 아니었으나 그 나름으로 유력한 알리바이를 가지고 있었다. 그 알리바이는 이즈막 그의 동년배 작가들 대다수의 형태, 즉 사유 및 형상에 대한 언어의 함축능력이나 언어의 정서적 환기력을 끌어 올리는 데에 있어 당연히 수반되어야 할 각고에 대해서는 별반 신경 쓰지 않는 양상에서 반증적으로 확보된다.

여러 군상들의 다양한 삶에 밀착

그러나 이런 점은 김소진 문학의 풍정을 이해하는 데에 있어 단지 부분적인 이해일 뿐이다. 그의 문학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그가 현실을 살아가는 여러 군상들의 ‘다양한’ 삶에 밀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삶의 여러 무늬들을 문학적으로 오롯이 떠오르고 있다는 것에 주목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그의 독특한 언어 다루기는 그 밀착을 위한 장치인 셈이다. 현실의 인간과 그들을 둘러싸고 있는 물상의 다각을 입체적으로 떠 오르는 그의 노력은 「고아편 뺨덕어멈」에서도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다.

표제작 「고아편 뺨덕어멈」은 이제는 잊혀져 가는 약장수 극단(이것은 ‘나’의 아버지에게서 이제는 점점 스러져가는 정서의 동일성을 다시금 확인시켜 주는 요소이다)이 상징하는 아버지 세대의 정서적 반영물, 그리고 그 반영물의 한 요소인 뺨덕어멈을 통해 세대, 분단 등을 생각해 하는 작품이다. 여기다 작가는 역사문제의 생생함을 ‘슬며시’ 외삽시키고 있다. 소설에서 이 외삽은 거부반응으로서가 아니라 일종의 화학적 결합 형태로 성공하고 있다. 역사라는 거대한 지평을 작은 소설에서 설득력 있게 환기시키는 것은 결코 수월한 일이 아니다. 이 수월치 않은 일을 해낼 수 있었던 것은 아버지의 상사증 혹은 회춘이라는, 어쩌면 통속적이고 사소한 일상의 알갱이로 역사문제를 에둘러 불러들일 줄 아는 그의 능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문학은 항상 현실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마치 잠수함의 토끼처럼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선취능력은 막강한 현실의 힘덩어리에 고란과 균열의 지점을 파놓는 송곳 혹은 날이 된다. 최근 세 작가의 소설들은 각기 다른 문학적 힘으로 현실문제를 이야기하고 있다.

숙함에 있다.

이런 맥락은 「개홀레꾼」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개와 역사라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짝패를 등장시켜, 그 어울릴 것 같지 않은 요소가 우리 역사에서는 기막히게 잘 어울리는 풍경으로 작용하게 되었다는 현실을 걸림없이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와 같은, 겉으로는 금방 드러나지 않지만 속으로 들어가보면 저도 모르게 역사식에 젖어들게 만드는 그의 소설의 특징은 「혁명기념일」에도 나타난다. 여기서 작가가 문제삼는 것은 혁명의 키치화이다. 근대정치의 비조인 프랑스혁명이 하나의 단순 기념적 이벤트로 소비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이 소설 공간은, 지난 80년대 혁명의 수레바퀴를 같이 굴렀던 인물들의 미묘한 현재적 삶과 맞물려 혁명이라는 거대한 역사적 ‘이벤트’의 당대적 공간

을 세삼 곱곰이 생각하게 만든다.

체험 밖의 세대에 대한 동화

이즈음 젊은 작가들의 문제는 새로운 것에 대한 강박, 훌쩍짜리 사유, 자기 체험밖으로 나가면 심히 위태로운 행로를 보여준다는 것이다. 이런 위태로움을 부정하기 위해 취하는 자세는 대개 풍성한 현실에 대한 폭력적인 단순화이다. 하지만 같은 젊은 작가인 김소진 문학의 미덕은 상대적으로 예의 젊은 작가군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데에 있다. 말하자면 김소진은 자기 고유의 세상읽기의 준거와 정서의 고양법을 모색해 나가지만, 동시에 자기 체험 밖에 있는 세대 혹은 사람들의 마음자리를 읽고 동화하려 애쓰는 것이다. 하나의 타자인 ‘다른 삶’에 대한 숙고와 이해의 노력은 현실에 대한 비평자이자 주석자인 소설가가 가장 우선, 해야 할 일이다. 이 소설집은 그 우선해야 할 일에 충실함을 보여준다는 점에서 주목치 않은 면모를 보인다.

한편 이상락의 「고강동 사람들」은 우리 문학사에서 익히 보아온 형태의 소설이다. 그것을 세대소설이라고 하기도 하고 ‘민중약전’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가령 몇년전 상재된 양귀자의 「원미동 사람들」도 그 중의 하나였다.

이 소설의 재미는 무엇보다도 자잘한 주변부 인생들의 자잘한 사연들을 맛깔좋은 입담으로 풀어 헤치는 점에 있다. 이는 작가의 언어 직조 솜씨에서도 연유하지만, 본질적으로 묘사대상인 삶 자체가 재미를 함축하고 있다

는 점에서 유래한다. 그런 점에서 작가는 소설공간 안에서의 고강동 현장을 소설 밖으로 실황중계하는 ‘책방네’와 같은 육성 전달자의 소임을 충실히 맡고 있는 위치가 아닐까? 전통적인 소설이론에서 작가는 사심없이 현실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때 비로소 진짜 작가가 된다고 한다. 이 이론의 영역내에서라는 조건을 전제하고 볼 때 이상락은 진짜 작가의 반열에 좀더 가까이 가 있는 셈이다.

현실의 힘에 못미치는 문학

1992년 「압구정동에는 비상구가 없다」라는 소설로 당시 현실의 시류에 적절히 대응한 이순원의 「에덴에 그를 보낸다」는 ‘압구정동’ 시리즈의 연장선 위에 있는 소설이다. 그의 ‘압구정’ 시리즈가 나왔을 때 그 소설의 건축 방식과 겨냥하는 효과의 현실성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은 바는 아니었으나, 향후 일종의 페스트처럼 번져갈 ‘압구정동적 문제’에 대한 작가의 강한 경고성 진단은 나름의 현실성에 값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한국 천민자본주의의 ‘천민적 기호’인 ‘압구정동적’ 현실은 여전하다. 아니 오히려 확대재생산되고 있다. 여기서 작가 이순원과 그의 분신인 「에덴에 그를 보낸다」의 소설가 ‘이득지’는 절망한다. 왜냐하면 이 소설이나 그 이전 소설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제해결 방식은 사실 현실적 방책이 되기에 그 자체로도 부족하거나, 게다가 압구정동 현상의 모태인 천민자본주의는 그 해결방식조차 자신의 성장축진제로 포섭하기 때문이다.

물리적 차원에서 보면 문학은 항상 현실의 힘에 미치지 못한다. 그러나 마치 잠수함의 토끼처럼 문학이 가지고 있는 예민한 선취 능력은 막강한 현실의 힘덩어리에 고란과 균열의 지점을 파놓는 송곳 혹은 날이 된다. 이 소설이 ‘압구정동적 문제’에 대한 해결사는 되지 못해도, 소설의 화두가 그 문제를 뒤 흔들어 놓을 수 있는 것은 이 때문이다.

「고아편 뺨덕어멈」/ 솔 / A5신 / 262면 / 5500원
 「고강동 사람들」/ 열린세상 / A5신 / 336면 / 5800원
 「에덴에 그를 보낸다(상·하)」/ 책나무 / A5신 / 298, 332면 / 각 5800원